

4.水稻品種間 交雜에 있어서 稈長의 遺傳分離

IX. semi-dwarf gene 과 대응관계에 있는 japonica 品種들 간의 組合에 있어서 稈長의 遺傳分離

허문희, 박순직, 김홍열*, 김용권
(서울농대, 한국방송통신대)

短稈 japonica 品種들의 semi-dwarf(dt) gene 에 대한 allelism 을 檢討하기 위하여 semi-dwarf gene 에 대하여 allelic tall 因子를 가진 Binato 와 semi-dwarf gene 을 가진 wx817 을 檢定親으로 하여 7개의 短稈 japonica 品種들 (Reimei, Hoyoku, Shiranui, Kokumasari, M7 S. 224, S.295) 간에 交配한 組合들의 F_1 , F_2 및 F_3 를 전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短稈 japonica 品種들은 Binato 와의 組合 F_2 에서 短稈 : 長稈이 1 : 3 으로 分離하였으며
2. F_2 短稈群에서 선발한 F_3 은 分離하지 않았으나 F_2 長稈群에서 선발한 것은 長稈 homo 와 hetero 가 1 : 2 로 분리하였고, 분리양상은 F_2 와 동일하였다.
3. semi-dwarf 인 wx817 과 短稈 japonica 品種들과의 組合 F_2 에서는 모든 組合에서 兩親의 稈長 범위내에서 변이하여 分離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
4. 短稈 japonica 品種들 간의 모든 組合에서도 wx817 × 단간 japonica 품종 조합의 F_2 및 F_3 의 변이와 동일하였다.
5. 短稈組合 F_2 에서 短稈 및 長稈쪽으로 선발한 F_3 集團의 稈長 平均値는 有意差를 보여 供試短稈 母本들의 短稈主働遺傳子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Modifier 가 작용하는 것으로 推定된다.